

# 소상공인 심리위기 조기 발견...생명안전망 넓힌다

소진공, PHQ-9 선별검사·심리회복·재기지원 등 연계

다양한 체형 프로그램·전문 컨설턴트 맞춤 상담 지원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 단위 생명안전망이 확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소상공인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이 심리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과 심리회복, 재기 지원까지 연계하는 지역 기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50대 남성 소상공인을 비롯해 심리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이 적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부터 상담, 회복, 재기까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양 기관은 우선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지역 자살예방센터 간 1대 1 매칭 협력체계를 기존 35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필요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한편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과 교육,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위험 수단 차단 등 지역 밀착형 생명지킴이 활동을 공동 추진한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는 우울증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소상공인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살 위험 선별도구인 'PHQ-9'도 비치한다. 소상공인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에

방 상담전화 '109'와 지역 자살예방센터를 안내해 상담과 전문기관 연계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폐업을 앞두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

인을 위한 심리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오감 걷기와 해먹 명상, 밸런스 테라피, 심리불 명상, 다도 명상 등으로 구성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 컨설

턴트의 1대 1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을 덜고 자신감과 재기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소진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심리적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심리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조기에 살피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곳곳에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을 세심하게 살피는 심리·정서적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전남광주소방, 현장지휘관 직무교육

신속 안전 현장지휘 체계 확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지난 달 29일부터 1일까지 3일간 광주소방학교에서 현장지휘관을 대상으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재와 구조·구급, 복합재난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초기 대응능력과 지휘역량을 높이고,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지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광주권역 각 소방서 현장지휘관인 현장대응단장과 지휘팀장, 선적대장인 센터장과 팀장 등 65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광주소방학교 지휘역량센터의 가상



현실(VR) 교육환경을 활용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재난 상황을 실제 현장처럼 구현하고, 현장지휘관의 신속한 판단과 효과적인 진압전술 능력을 높이는 실전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양동민 기자 yang00@

## 전남광주, 치매어르신 실종 대응 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2026년도 시민체감형 치매 어르신 실종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은 실종자 신속 발견과 안전 귀가를 위한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현장 참여를 이끌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진행했다.

훈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치매센터, 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광주경찰청이 공동 주관했다. 서부소방서, 광주시립오양병원 등 관련기관 관계자와 시민도 훈련에 함께했다.

훈련은 시민들이 실종 상황 발생의 '발



견→신고→예방'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참여 시민들은 실종 치매 어르신 발견 상황을 가정해 어르신께 다가가기, 경찰 신고 절차 등 초기 대응 요령을 익혔다.

실종 예방 서비스인 지문 사전등록 제도, 배회인식표, 배회감지기, 스마트태그 등을 안내하고 서비스별 기능과 이용 방법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과학관, 호남권 이공계 심화과정 운영

AWS 전문가 참여...102명 참여 54명 수료

국립광주과학관이 호남 지역의 인공지능(AI)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마무리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최근 호남지역 AI 과학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역량을 갖춘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한 '2026 AI 전문강사 양성과정(Kiro 기반 심화과정)'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호남권 이공계 전공자와 경력 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9월 4일과 11일 두 차례 진행됐다. 교육에는 모두 102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4명이 전과정을 수료했다.

교육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생성형 AI와 AI 개발 도구의 이해, 바이브 코딩, 스펙 코딩 등을 주제로 AI 활용 개발 방법을 설명

했다. 특히 AWS의 AI 개발 도구인 '키로(Kiro)'를 활용한 실습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수업 자료와 교육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하고 결과물을 공유하며 AI 기술을 과학교육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높였다.

교육장에는 다양한 AI 로봇과 교육용 교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교구와 로봇을 살펴보고 과학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했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AI 도구를 활용해 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었던 점과 강사의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개별 지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육 시간 확대와 후속·심화 교육 운영을 희망하는 의견도 제시하며 AI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



국립광주과학관은 최근 호남지역 AI 과학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역량을 갖춘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한 '2026 AI 전문강사 양성과정(Kiro 기반 심화과정)'을 마쳤다.

였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이번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술 변화와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후속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료생들이 AI 콘텐츠 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향후 과학교육 강사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과정을 기획한 송미금 국립광

주과학관 과학교육실 선임연구원은 "이번 과정은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강사들이 직접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구현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과학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조선대병원, 진도서 의료봉사활동 전개

진료·초음파·물리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조선대학교병원이 진도를 찾아 의료봉사를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했다.

조선대병원은 최근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경로당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봉사단은 이현영 대외협력실장과 성경훈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해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각 진료

과 의료진과 교직원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봉사는 의료서비스 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으며, 봉사단은 지역민들에게 진료상담과 투약, 초음파, 물리치료, 영양제 수액 주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현영 조선대병원 대외협력실장은 "이번 의료봉사가 지역민의 건강을 살피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조선대병원은 최근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경로당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지역사회 의료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을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

영어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봉사량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운세 (음력 8월 22일)

**쥐** 48년생 영웅의 뜻을 품었다가 둔만 쓰는구나  
60년생 금전을 아끼면 아무것도 안된다  
72년생 상관을 모욕하면 복을 잃는다  
84년생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다  
96년생 부모님 질병에 눈물 흘릴 것

**토끼** 51년생 북쪽 피해라 화가 덮쳐 부상 입는다  
63년생 다른 직장에서 불려다 가지 마라  
75년생 부모 근심 있고 재산 시비 남자 근심  
87년생 비바람에 소리만 있고 형태는 없다  
99년생 처음에 곤란해도 뒤에는 길하다

**말** 54년생 메시가 위험한듯 하지만 안전하다  
66년생 많은 일을 많은데 소득이 적다  
78년생 재물 얻으려 가는 길에 어렵다  
90년생 이별을 애석하지 여기지 마라

**돼지** 57년생 암초투성이의 일로 진입하고 있다  
69년생 귀에 거슬릴지언정 삶에 도움이 된다  
81년생 적은 힘을 들어 소득을 얻게 되는 날  
93년생 인심 좋고 능력 인정받으니 기분 좋다

**소** 49년생 지인이 부동산 매매 관하나 이익 없다  
61년생 마음은 만만하나 공명은 이루지 못한다  
73년생 집에 경사있고 남쪽이 유익하다  
85년생 공명승진은 없고 계획은 추진이 않는다  
97년생 목적 진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

**황소** 52년생 달빛이 자꾸 어두어진다  
64년생 목적이 달성되고 높은 자리에 앉는다  
76년생 직장생활에 방해되는 사람이 나타난다  
88년생 배우자와 관계에 소원하지 마라

**양** 55년생 꿈속에서 놀라고 몸이 아프다  
67년생 권세부리는 공명이 이루어진다  
79년생 부부근심 있고 자식 걱정 있다  
91년생 시기와 질투로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개** 58년생 부동산 매매에 마음을 가다듬어라  
70년생 하늘에 대고 기도만 하고 노력은 않는다  
82년생 매사에 양심에 충실하면 대길하다  
94년생 마음만 있고 뜻을 이루지 못한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호랑이** 50년생 소득에만 신경 쓸 것 아니다  
62년생 연인부터 보물을 얻으니 부러움 산다  
74년생 부동산으로 인해 손해가 있다  
86년생 살림을 일으키고 소득이 오른다  
98년생 상관이 좋은 자리에 보내준다

**범** 53년생 덕성 있는 신하가 들어가는 격  
65년생 직위 승진하고 봉급도 오른다  
77년생 두꺼비가 사다리를 오르는 날  
89년생 말이 발이 아파 억으로 갈수가 없다

**원숭이** 56년생 모든것이 번거롭고 지리하다  
68년생 먼 곳에 가면 병이나고 피를 흘린다  
80년생 공명을 올라갈 사다리가 없다  
92년생 돈 나가는 문서가 들어올 것

**돼지** 59년생 매사에 허풍만 치고 실이 없다  
71년생 얻는것 보다 빼앗기지 않게 하라  
83년생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  
95년생 마음 맞는 동료가 있어 즐겁다